

아이디어창출

발명의 발상기법

16. 애인 치마가

콜라병을 낳았다

1923년 미국의 벽촌에 루드칭년은 조그만 공장에서 유리병을 불고 있었다. 그러나 거저 유리불기만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병의 모양을 만들어서는 부수고 또 만들어서는 부수고 있었다. 그 무렵,

「유리병이 짓었을 때 잘 미끌어져 떨어진다. 미끌어져 떨어지지 않는 병은 안될까?」「병에 든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병은 어떤 모양이 좋을까?」라는 2가지의 요구가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벌써 몇가지나 만들어선 부셨다.

어느날 그의 애인이 찾아왔다. 오늘의 그의 애인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훨씬 예뻐보였다.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니 그 무렵 유행하던 포폴치마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이 치마는 무릎있는 곳이 좁기 때문에 걷기 힘든 모습이니 중둥이의 선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루드칭년은 한참동안 그 애인을 바라보았다. 곧 그 애인의 중둥이 부분을 묘사했다. 그리고 치마모양을 어떻게 병에 재현시킬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병을 곧 특허출원했다. 이렇게 해두면 미국에서는 17년간 독점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병을 가지고 코카콜라사를 찾았다.

「사장님! 보십시오, 모양 좋고 잡기 좋아 미끌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채용해 주십시오.」하고 말했으나 흥정은 깨지고 말았다. 그 다음날 루드는 다시 물건과 발명한 병을 들고 방문했다.

「사장님 이 병과 물건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야 물론 병이 많이 들어가겠지?」



루드는 말없이 병에 가득 채운 물을 물잔에 따랐다. 그러자 8부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사장은 눈을 크게 떴다. 영업감각이 번득였다. 이리하여 초라한 청년의 아이디어에 고개숙였다. 즉석에서 계약이 성립되어 1크로스(144병)에 5센트였다. 의장의 권리가 내리자 일시불로 권리를 팔아달라고 했다.

대회사는 자신의 판매 수량이 제 3자에게 알려지면 영업상 불리함이 많다.

루드는 적어도 3백만~6백만달러는 받았으리라 한다. 이 유리병의 성공담은 전 미국에 유명하게 되어 미국인은 코카콜라병을 손에 쥌 때마다 「나도 한 번 발명해 보자」는 야망에 가슴이 부풀었다고 한다.

17.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라

「나는 이런 편리한 연필깎이를 만들었다. 실용신안에 출원해서 권리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가끔있다. 어느 것이나 대체로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장나기 쉽다.」「값이 비싸다.」「위험하다.」 따위의 결점이 눈에 띈다. 되물어 보면,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연필깎이가 팔렸는지 알고 있는가?」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거의가 어렸을 때 가졌던 연필깎이의 지식과 자기자녀의 것 밖에 모른다. 그래서 왕관마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페인다는 병속에 든 알맹이가 상하지 않는 병마개를 발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마개가 발명되어 있느냐 조사했다. 콜크마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개 · 고무마개 · 금속마개 · 나사마개 · 끼움마개 · 음료용마개 · 약병마개 · 화장품마개 따위 5년 동안에 6백종 이상의 마개를 수집했다.

그래서 드디어 현재의 사이다 · 맥주 등에 쓰이고 있는 「콜크를 안에 넣은 금속판을 덮은 마개 왕관병마개」를 발명하여 「소품발명왕」이 됐다.

당신이 만일 연필깎이를 발명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어떤 연필깎이가 있는가 조사하라. 조그만 문방구만 찾아가도 4~5종류는 팔고 있다. 우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다시 백화점에서 조사하고, 다음에는 등근마대기를 깎는 선반의 깎는 법은 물론, 물건을 깎는 공구에 대한 같은 계통의 지식이 붙고, 그 위에 공부가 쌓여야만 백만명의 학생이 쓸 수 있는 연필깎이가 발명되리라. 이것은 발명의 하나의 정석이다. 그리고, 「발명력이 있는 사람은 모방도 잘 한다.」는 말도 하나의 진리다.

아이디어를 짜내는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오스본은, 한 권의 책의 이름을 붙이는데 6백종 이상의 이름을 생각해내어, 여럿이서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명을 골라내어 성공하고 있다.

606이란 독일의 에르리히가 606

번제 실험에서 합성해 낸 「유기비소화합물」로 살발산의 약명을 갖고 있다. 성병인 매독에 무방비상태였던 유럽에서, 살발산의 발명은 획기적이었다. 그 때문에 1908년 노오벨의학상이 수여됐다.

이처럼 같은 계통을 꾸준히 볼들



고 늘어지는 「억척스러운 끈기」가, 이런 훌륭한 발명을 낳는다.

18. 기록하라, 잊기전에, 늦기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 기록하라. 떠오른 생각은 20분만에 그 40%를, 24시간 후에는 7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링컨은 모자 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 두고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게 했다. 링컨의 모자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었다.

슈베르트는 마음 속에 항상 아름다운 악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적어 나갔다. 어느 때는 식당의 식단표에 어느 때는 서 있는 마차의 뒤에까지 적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잠재의식의 세계로 빠져버리므로 단단히 의식의 뒤에 붙잡아 두자면 곧 기록해 둘 일이다.

「본업은 버리지 말라, 발명은 부업삼아 하라, 「기록광」이 되라, 그러나 「발명광」은 되지 말라.」

세계의 뛰어난 발명가들은 모두 「기록광」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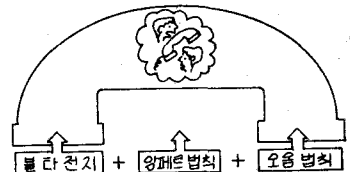
「기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기록은 후일에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발한데!」하고 생각하나 시간이 흐르면 자꾸자꾸 결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결점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그것을 고칠 아이디어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잠자리에 들기전에 항상 머리맡에 2매의 녹음기를 두고 「생각난 것」「꿈에 본 것」을 그 자리에서 녹음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떠오른 금싸라기 같은 아이디어를 아무 미련없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B씨는 항상 백지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산책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보고 들으면 그것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전의 일이다. 그는 야광 플라스틱제품에 흥미가 있었기에 무엇인가 이 방면의 신제품은 없을까 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야광부표 · 야광 손잡이 · 야광 광고등은 이미 많았다.

며칠 전 그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걷고 있을 때나 닥치는 대로 생각난 말을 쪽지에 적었다. 지하실 · 벽장 · 자동차 · 밤 · 비 · 물 · 칩실 · 칩대 · 칩실용 물잔 이렇게 연상되는 말을 적어 나가다가 문득 생각났다.



「그렇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물건이다.」

그의 내내는 항상 밤중에 어둠속에서 물건을 찾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의 「야광물건」을 제품의 하나에 더하여 성공했다.

19. 특허가 되는 물품의 발명

「물품의 발명」의 하나로 「철조망」이 있다.

미국의 게름뱅이 양치기 소년 조셉이 발명했다. 조셉은 가끔 멍청하게 판전을 피우다 보면, 양들은 울타리를 타넘어 이웃의 콩밭을 망가뜨렸다.

조셉은 그 때마다 주인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다. 이런 일도 자꾸만 되풀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못타넘게 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한 조셉은 어느날 가만히 살펴보니 양들이 뛰어넘는 곳은 가시돋친 장미넝쿨의 울타리가 아니라 철사만 둘러친 울타리 쪽이었다. 양들의 습성을 알아낸 그는 대장간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양들이 못타넘게 철사울타리를 장미가시처럼 철사에 가시를 붙여, 양이 못타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재미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다음날 곧 목장에 나갔다. 조셉 부자는 철사 군데군데에 가시철사 가닥을 섞어 넣어가면서 새끼처럼 꼬아 울타리에 둘러쳤다. 효과 100%. 다시는 한 마리의 양도 타넘지 않았다.

「됐다!」생각한 그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특허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알지르는 사람이 없었다. 곧 특허출원하여 친구들과 손잡아 사업화에 힘썼다. 이리하여 「가시 돋친 두 가닥의 철사」로 된 철조망은 15년간 독점 보호받는 국제특허까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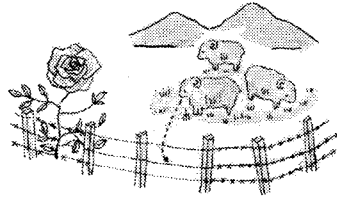
철조망은 처음엔 울타리에 사용되어 도둑막이에 큰 도움을 주었다. 매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세계 각국의 육군이 다투어 군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폭발적인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백m 만드는데 1원의 특허사용료를 지불했었다.

조셉부자가 15년 동안에 받은 권리금은 미국에서도 이름난 계리사 11명이 1년 걸려도 계산을 다 하지 못했다고 했다.

「철사를 꼬아가며 그 사이에 드문드문 짧은 철사를 끼운다.」는 간단한 생각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했다.

「게름뱅이라는 결점」이 있어도, 「궁리한다는 장점」만 있으면, 그것은 결점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특허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발명이나 아이디어는 발명한 사람만의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에게 커다란 「권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

20. 실용신안(고안)은 10년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그 정도가 낮은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물건을 만든다거나, 처리하는 방법처럼,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용신안은 반드시 어떤 모양

으로 나타내야 한다.

실용신안에서 물품이란, 「반드시 단독으로 거래되는 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의 원료에 불과한 것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 또는 기체나 액체와 같은 것을 물품이라 할 수는 없다.

예술품이나 골동품은 모양을 갖춘 물품이며, 또 단독으로 거래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의 물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용신안의 물품은 반드시 산업상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실용신안의 씨앗이다.

연필의 한 쪽 끝에 지우개를 붙인 연필은 실용신안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다. 연필도 지우개도 이미 있었다. 이것을 조합시키므로 지금까지 잘못 쓴 글씨를 지우고 싶을 때, 지우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그러니까 특허처럼 물품을 발명한 것은 아니고, 「연필과 지우개를 합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에 만든 연필은 둥근 축이었다. 잘 굴러가서 고정시키기가 불편했다. 이것을 6각의 연필로 모나게 고쳐 구르는 불편을 없앴다. 이것을 「개량발명」이라고 한다. 이것도 지금까지 있었던 「둥근 연필을 다만 모나게 고쳤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조그만 개량일지라도 대단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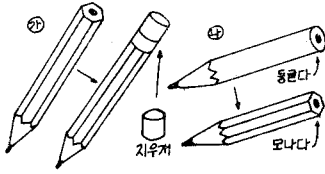
미국에서 롤라스케이트를 고안한 사람은 그 특허료로 백만달러나 받았다.

쇠못이 불편하여 나무못을 고안한 사람은, 해마다 50만 달러씩 이익을 올렸다.

구두끈 매기가 귀찮았던 게름뱅이가 단추매신 쓰이는 갈고리 모양의 쇠고리인 호크를 고안한 실용신안의 권리를 60만 달러에 팔았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의 고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실용신안에서 「고안」이라는 것은 「신규의 고안(소발명)」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용신안과 발명은 비슷하나 질적 차이뿐이며, 실용신안의 권리기간은 10년이다.

21. 의장(디자인)은 8년

의장(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따위를 말하며,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㉔의 모난 만년필을 ㉕의 미끈한 유선형으로 하여 아름답게 한 것이니까 의장이 된다.

의장이란 물품에만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물품은 형체가 있어야 한다.

의장으로 세계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는 덴마크의 호이젠은 「긴손

원숭이」를 나무로 만들었다. 그 모양이 매우 좋아서 그것이 세계에 팔려 나갔다. 놀랍게도 완구관계자나 의장 관계자는 누구나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미국에서는 이 원숭이 한 마리가 9달러로 날개 돌린듯 잘 팔렸다. 따라서 호이젠은 원숭이의 의장만으로도 세계의 돈을 굶어 들였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가지 원숭이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의장이 좋지 않아 그 값은, 같은 크기라도 1달러하는 것도 없다.

얼마나 의장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디즈니의 인형그림을 넣으면 무엇이든 잘 팔린다. 이것은 디즈니의 만화의 의장이 좋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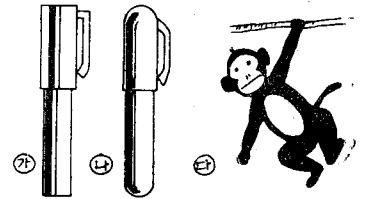
의장은 공업소유권으로 특허청에서 8년 동안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요사이 라디오나 만년필이나 「화장품에서 기관차까지」모양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안팔리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투어 의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엌살림까지도 실용적인 것보다, 우선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피카소의 그림이 한 장에 몇 천 만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가를 실증해 주는 좋은 증거이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간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

남녀관계 역시 그렇다. 남자나 여자나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갈피를 잡지못해 일생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교양도 건강도 같다면 미인쪽이 좋다.」라는 말은 당연하며, 대개의 경우 다소의 결점이 있더라도 미인이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업가들도, 그 미를 독점하려고 의장출원에 차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계속>

(案) 月刊 「發明特許」 稿募集 (內)

本誌는 讀者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 論文 : 200字 原稿紙 20~50枚(번역문 포함)
- ◎ 우리社의 特許管理 : 15~30枚 内の
-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 30枚 内の(추후 단행본으로도 製作 됨)
- ◎ 나의 提言 : 10枚 内の(工業所有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 工業所有權 수필 : 10枚 内の(外國視察記 포함)
- ◎ 기타(社內消息 · 新製品 紹介)
- ◎ 接受期限 : 수시접수
-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査部 「月刊 發明特許」 編輯室